



## 김민석 국무총리, 라트비아 국회의장 면담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4.27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다이가 미에리나 (Daiga Mierina)」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,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나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,
  - 금번 방한을 통해 한-라트비아 관계가 정무, 산업,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,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- 미에리나 국회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, 금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, 에너지, 방산,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  - 또한 미에리나 국회의장은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,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.
- 특히 김 총리는 한-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면,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.
  - 이에 대해 미에리나 국회의장은 공감을 표하고 청년 교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조정희 (02-2100-2109)
		담당자	서기관	이예은 (02-2100-2132)

